

무여 스님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자"

안동불교사암연합회 초청 법회서 당부

봉화 축사서 주지이자 조계종 대종사 무여 스님이 성도재일을 맞아 불자들에게 끊임없는 공부를 당부했다.

안동불교사암연합회(회장 등운)는 1월 10일 안동시철 대동관에서 봉화 축서사 주지 무여 스님을 초청해 성도재일 법요식을 봉행했다.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과 봉정사 주지 도륜 스님, 연미사 주지 등운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무여 스님은 불제자들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중생을 제도하는 등불이 될 것을 당부했다.

무여 스님은 "불자들은 스스로 하심하면서 남에게 좋은 말을 전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자기 생각에 빠지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게 우선"이라며 "불자들이 하루에 한 장이라도 경전을 읽고, 사찰에서는 늘 목탁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정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부처님은 생사를 초탈한 깨달음으로 번뇌에서 벗어나 무상정각을 이뤘다. 불자들은 인연의 소중함을 알고, 자비 보시를 실천하며 인과의 무게를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동화사 · 불국사 각각 성도절 법회

조계종 제9교구 동화사와 11교구 불국사가 성도절을 맞아 각각 기념법회를 봉행, 부처님 깨달음을 기렸다.

팔공총림 동화사(주지 효광)와 대구불교사원연합회(회장 선지)는 1월 13일 대구시민체육관에서 2천여 불자가 모인 가운데 '성도절 가사공양 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서는 불자들이 정성들여 만든 가사를 215명의 스님들에게 공양 올렸다.

선지 스님은 "부처님께서 정각 이루심은 어두운 사바세계에 지혜의 등불을 밝힌 것과 같다. 청정한 불국정토를 이루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효광 스님은 "나와 네가 둘이 아니고 사람이 곧 부처라는 성도절 본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 불국사(주지 종우)는 12일 불국사 문화회관 3층 강당에서 성도재일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은 "육신과 정신의 조화로 깨침의 길로 가는 것이 성도의 본질"이라고 법문했다.

부주지 철산 스님은 "얻기 어려운 인간의 몸을 얻었고, 만나기 힘든 불법을 만났으니 부처님 가피력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참된 지혜로 보살도를 실천해 자유인이 되자"고 발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처님 자비 실천 충주가 모범 되길"

Interview

제21대 충주사암연합회장 일심 스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0대 이어 21대 회장직 추대
비구니로서는 연임 최초 사례
공간 중심 취약계층 지원 계획
지역사회 공헌에 사찰들 참염

"제20대 회장 임기를 수행하면서 연임하게 될 것이라곤 생각 못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라는 대중의 뜻으로 받아들여 충주가 부처님 자비 실천의 모범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불교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충주불교사암연합회 제21대 회장에 법화종 장왕사 주지 일심 스님이 1월 12일 추대됐다. 일심 스님은 2017년 1월 제20대 회장에 취임한 충주사암연합회 최초의 비구니다. 이 때문에 비구니가 사암연합회장을 연임한 것은 더욱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앞서 2년간 회장을 맡아 지역불교 발전에 힘써온 일심 스님은 취임 소감을 이 같이 밝히며 향후 '거점을 통한 지역포교'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주불교사암연합회는 30년 넘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지역불교단체입니다. 연합회에는 120여 사찰이 소속돼 있고, 임원사찰만 해도 20여 곳에 달하죠. 수많은 사찰들이 종단에 얽매이지 않고 함께 교류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습니다. 이제는 이처럼 굳건한 내실을 중심으로 대사회 역할을 수행하는 데 나설 때입니다. 그 첫 단추는 유치원과 양로원 같은 특정 계층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주사암연합회는 소외계층 백미 지원과 장학금 기탁, 호국영령 국태민안 위령제 등 다양한 방편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해왔다. 하지만 대부분 단발성 행사가 중심을 이루면서 지역민들과의 지속적 교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일심 스님은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공간을 확보해 제공하면서 연합회의 대사회적 역량을 키운다는 복안이다.

"불교 최초의 승원인 죽림정사는 빔비사라왕이 승가에 보시한 땅에 마련됐고, 사위국의 재벌인 수닷타 장자는 기원정사를 지어 공양 올려 불교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보시 공덕이지만 죽림정사와 기원정사 모두 하나의 공간입니다. 즉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여법한 공간이 생긴다면 소속감과 자존감이 높아지고,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간 마련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재원이다. 그렇기에 일심 스님은 지금의 목표가 단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진 않았다. 다만 스님은 지금의 장왕사를 맨 손으로 일궈낸 경험을 바탕으로 공의를 모아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충주사암연합회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주인공이 된다면 우리의 발원을 이루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충주의 사찰들이 지역사회와 함께해야 한다는 뜻에 공감하고 있고, 그 방편은 부처님의 자비 실천이라는 것을 알기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리라 기대합니다."

한편 일심 스님은 이천 영원사와 백용사에서 수행했으며, 1976년 충주 장왕서를 건립하고 현재까지 주지를 맡고 있다. 법화종서 수차례 감사패와 공로패 등을 받았으며, 2008년 충주사암연합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종단 내에서는 사회부장 소임을 거치고, 2012년 동국대 불교경영자최고위과정을 수료했다.

"포교 원력 다시 나눠요"

포교대상 혜거 스님 · 이정옥 상금 전액 조계종에 기부

제30회 조계종 포교대상 대상을 수상한 혜거 스님과 이정옥 씨가 대상 상금 전액을 각각 포교진흥기금과 불교성전편찬기금으로 희사했다.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은 1월 15일 조계종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포교진흥기금으로 5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왼쪽〉 기금은 구랍 19일 제30회 포교대상 시상식에서 받은 상금 전액으로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전달됐다.

혜거 스님은 "오히려 더 보태서 내야 하는데 부끄럽다. 적은 금액이지만 종단 포교불사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기금을 전하게 됐다. 올해 포교원이 진행하는 포교불사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포교원은 올해 신행혁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님의 마음을 받아 더 열심히 포교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제30회 포교대상 재가자 부분 대상을 받은 이정옥 씨는 16일 조계종 총무원장 집무실에서 불교성전편찬기금으로 상금을 전달했다.〈사진 오른쪽〉

이정옥 씨는 "불교성전 편찬은 이 시대 불법 홍포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보다 많은 이들이 성전을 보고 신심이 날 수 있도록 잘 편찬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모바일과 점자 성전 등 시대에 맞는 성전도 준비해 가겠다. 불교성전 편찬에 보내온 첫 성금인 만큼 의미 있게 쓰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동국대 · 외교부 '교육 MOU'

영사분야 교육 · 전문인력 양성 위해



동국대(총장 보광)는 1월 16일 외교부 국민외교센터에서 외교부(장관 강경화)와 영사분야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동국대와 외교부는 다분야에 능통한 영사 전문 인재육성과 선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신성민 기자**

종단총연합회 회장단 추대

총재 회암 스님 · 회장 정일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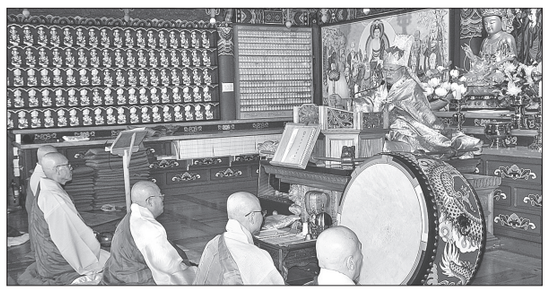


(사)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이사장 산수)는 1월 15일 충북 옥천군 옥천명가에서 제2기 회장단을 구성했다. 총재에는 대한불교본조계종 총무원장 회암 스님, 부총재에는 (사)한국법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혜운 스님이 추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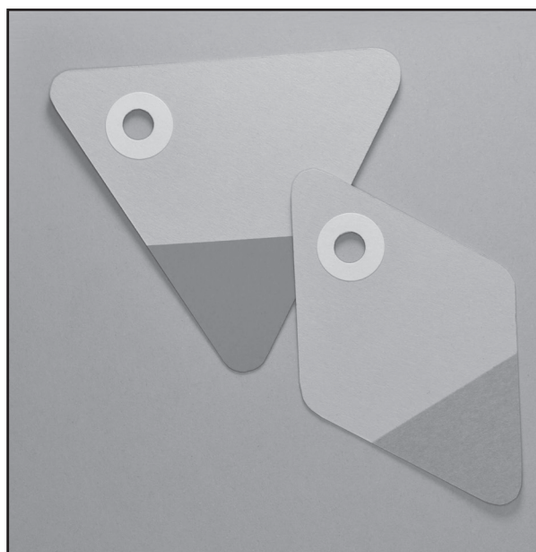
회장에는 (사)한국불교근본해동종 총무원장 정일 스님, 상근부회장에는 대성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해일 스님, 수석부회장에는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학장 지일 스님, 상임부회장에는 (사)대한불교연조계종 총무원장 혜광 스님, 부회장에는 한국불교일광조계종 총무원장 미산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신성민 기자**

연화조계종 기해년 신년하례

1월 10일 총본산 정림사 대웅전서



(사)대한불교연화조계종은 1월 10일 총본산 정림사 대웅전에서 기해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보명 스님과 종회의장 봉정 스님, 총무원장 혜법 스님, 문화원장 진송 스님, 총무부장 정호 스님 및 회원 종도 사찰 주지 스님 20여 명이 동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피부 · 치아 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 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 건조, 임플란트 또는 틀니 하시고 윗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소화불량, 스트레스(화병), 가슴통증, 수행시상기증, 얼굴모낭충,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전신 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 (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 피부건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대장염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